

## 사회



## 김덕령 장군 413주기 제향

광주시는 충장공 김덕령 장군 순절(殉節) 제413주기를 맞아 16일 오전 11시 북구 금곡동 충장사에서 제향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광태 광주시 장과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와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위즈팅기자 jwji@kwangju.co.kr

## 신종플루가 빼앗아간 수학여행

## 광주 초·중·고, 가을철 행사 198건 취소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광주지역 일선학교에서 가을축제나 수학여행, 운동회, 소풍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초·중·고교 181개교를 대상으로 학생 300명 이상 참여하는 2학기 행사의 개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102개교(56.3%)에서 계획했던 436개 행사를 45% 이르는 198개의 행사를 취소했다. 아직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행사도 95개에 이른다.

각 학급별로는 전체 145개 초등학교 중 75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개교에서 180개 행사 중 89개를 취소했다. 취소된 행사는 학부모 공동체의 날이나 가을체육대회, 현장 체험학습, 알뜰시장, 학예회, 수학여행 등이다.

또 아직까지 행사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학교도 상당수에서 신종플루의 확산이 지속될 경우 행사 취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종·고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

체 84개교 중 49개교를 조사한 중학교에서는 27개교 117개 행사 가운데 66개가 취소됐다. 취소된 행사는 주로 체험학습이나 예술제, 체력검사, 수학여행, 소풍 등이다.

고등학교도 조사대상 57개교(전체 65개교) 가운데 26개교에서 139개 행사 중 43개를 취소했다. 나머지 학교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완도 금일면 초·중생 신종플루 집단 감염

완도군 청산면에 이어 금일면 초·중학생들이 신종플루에 집단 감염돼 보건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완도의료원은 “금일면 A초등학교 학생 2명이 확진환자로 확인된 초등학생의 어머니인 교직원 1명과 학생 1명이 출근과 등교가 금지됐다.

인근 모 중학교도 양성환자로 확인된 초등학생의 어머니인 교직원 1명과 학생 1명이 출근과 등교가 금지됐다.

완도관내에서는 지난달 27일 신종플루 환자가 첫 발생한 이후 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나 모두 완치돼 정상 등교하고 있다.

A초교는 지난 12일 학생 1명이 발열이 의심돼 등교정지됨에 이어 15일

2명이 완도의료원에서 확진판정을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들도 신종플루의 확산 여부를 지켜본 뒤 취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등 버스를 이용한 행사를 대부분 취소돼 가을철 대목을 노려온 지역 전세버스 업계 등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군위군이 187만8천2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진안군(157만38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남에

## 광주 교육경비보조금 전국 최하위

## 1인당 2만4천원...전북의 14분의 1

## 광산구는 5,500원

광주시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

춘진(민주당) 의원은 15일 공개한 ‘16개 시·도, 230개 자치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북이 33만3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32만2천원, 전남 26

만3천원 순이었다. 지원금이 가

장 적은 광역시는 울산으로 2만1

천원, 광주는 2만 4천원, 대구는

2만6천에 불과했다. 전북과 광주

의 격차는 무려 14배에 달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군위군이

187만8천2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진안군(157만38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군위군이

187만8천2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진안군(157만38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군위군이

187만8천2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진안군(157만38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군위군이

187만8천2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진안군(157만38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군위군이

187만8천2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진안군(157만38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호남대 3.1대 1

## 동신대 3.52대 1

## 광주대 2.85대 1

## 광주여대 3.3대 1

서는 강진군이 81만 5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곡성군 65만 5천원,

함평군 56만 3천원 순이었다. 반

면 광주시는 동구 2만 9천원, 남구

2만 1천원, 서구 1만 1천원, 북구

8천 900원, 광산구 5천 500원이

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

춘진(민주당) 의원은 15일 공개한

‘16개 시·도, 230개 자치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북이 33만3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32만2천원, 전남 26

만3천원 순이었다. 지원금이 가

장 적은 광역시는 울산으로 2만1

천원, 광주는 2만 4천원, 대구는

2만6천에 불과했다. 전북과 광주

의 격차는 무려 14배에 달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군위군이

187만8천2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진안군(157만38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군위군이

187만8천2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진안군(157만38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군위군이

187만8천2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진안군(157만38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군위군이

187만8천2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진안군(157만38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군위군이

187만8천2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진안군(157만38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군위군이

187만8천2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진안군(157만38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군위군이

187만8천2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진안군(157만38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군위군이

187만8천2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진안군(157만38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군위군이

187만8천2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진안군(157만38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군위군이

187만8천2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진안군(157만38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군위군이

187만8천2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진안군(157만38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군위군이

187만8천2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진안군(157만38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군위군이

187만8천2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진안군(157만38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군위군이

187만8천2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진안군(157만38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군위군이

187만8천2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진안군(157만38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군위군이

187만8천2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진안군(157만3800원)